

세계 정상의 항공우주산업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 엔진제작사

Snecma



Snecma

SAFRAN Group

오늘날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업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스네크마(Snecma). 특히 상용기 및 군용기 등 항공기 엔진에서 로켓 엔진, 그리고 엔진 MRO 사업까지 항공우주 엔진과 관련된 사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1945년 국영기업으로 시작

스네크마의 전신은 1905년 Seguin 형제가 프랑스 Gennevilliers에 설립한 'Societe des Moteurs Gnome' 라는 엔진제작사로 설립 후 헬기 엔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이후 1915년 'Societe des Moteurs Le Rhone' 엔진사와 합병한 데 이어 1945년 프랑스 정부가 엔진사를 국영화 하면서 지금의 SNECMA(Societe Nationale d' Etudes et Construction de Moteurs d' Aviation)로 탄생하게 됐다.



프랑스 Gennevilliers에 위치한 스네크마 본사 전경



스네크마의 전신인 Societe des Moteurs Gnome를 설립한 Seguin 형제

국영기업으로 재탄생한 스네크마는 1948년 첫 군용기 엔진인 ATAR 101V 개발을 시작으로 1974년에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와 CFM 인

타네셔널을 설립, 상용기 엔진 개발에도 뛰어 들었다. 이후 1979년에는 바이킹 및 HM7 로켓 엔진도 개발, 아리안 1 로켓에 사용되면서 항공기 엔진에서부터 로켓 엔진까지 개발하는 항공우주용 엔진제작사로 거듭났다.

그리고 1000번째 아리안 로켓이 발사된 2000년에는 Snecma Moteurs와 지주회사인 Snecma SA가 설립된 데 이어 2005년에는 Snecma SA와 프랑스 통신업체인 Sagem이 합병하면서 SAFRAN 그룹이 탄생했다. 그리고 Snecma Moteurs도 회사명이 지금의 Snecma로 변경됐다.

합병과 협력으로 사업 확장

스네크마 역시 다른 항공우주 기업처럼 합병과 협력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예컨대 스네크마는 2000년 Turbomeca와 Micro-turbo를 인수하여 소형터빈 사업분야를 강화한 데 이어, 2005년에는 프랑스의 대표적 통

신입체인 SAGEM과 합병하면서 방위산업 분야에서 유럽지역 내 4번째 규모의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이로써 스네크마는 2003년 매출 기준으로 유럽 4위의 기업으로 올라섰으며, 프랑스 내에서는 탈레스 다음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됐다.

1974년 상용기 엔진 개발을 위해 GE와 CFM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것은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GE와 스네크마는 항공기 엔진 제조 부문에 있어서 디자인 설계부터, 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이들 두 기업의 R&D 파트너십은 민간 기업 간의 R&D 네트워크 구축이 기업 간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잘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해 스네크마는 지난 2008년 GE와의 협력관계를 2040년까지 연장한다는 계약을 GE와 체결하기도 했다.

항공 및 우주로 아우르는 제품군

스네크마는 세계 주요 항공기용 엔진 매출액의 약 9%를 차지하고, 세계 제4위의 항공기 엔진 제작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스네크마는 상용기 및 군용기 엔진, 그리고 로켓 엔진 개발을 비롯해 엔진 수리 및 관리, 창정비 등 MRO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군용기 엔진

일찌감치 군용기 엔진을 개발해온 스네크마는 오늘날에도 전투기, 훈련기, 수송기 엔진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엔진으로 라팔 전투기에 탑재되는 M88-2 엔진과 미라지 전투기에 탑재되는 M53-P2 엔진이 스네크마가 개발한



라팔 전투기에 탑재되는 M88-2 엔진

전투기용 엔진이다. 이 외에도 스네크마는 E-3 센트리, E-6 머큐리, KC-135 및 RC-135 등에 탑재된 CFM56-2 엔진과 알파제트 훈련기에 탑재된 Larzac 엔진 등도 개발했다. 최근에는 ITP, MTU Aero

Engines 등과 합작으로 EPI(Europrop International)를 설립, 에어버스 밀리터리의 A400M에 탑재되는 TP400-D6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상용기 엔진

군용기 엔진보다 사업을 늦게 시작했지만 군용기 엔진 못지않게 상용기 엔진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현재 스네크마는 독자 개발 및 파트너십을 통해 현재 100석급 이상 규모의 여객기를 비롯해 리저널 및 비즈니스기 엔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GE와 공동으로 개발한 CFM56 엔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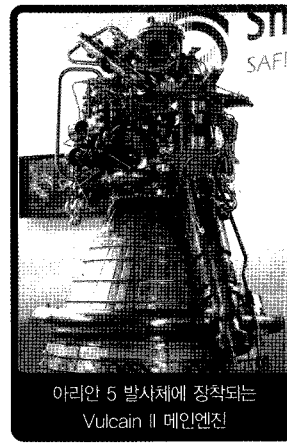
스네크마의 대표적인 상용기 엔진인 CFM56 엔진

1974년 처음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약 2만대가 넘게 납품될 만큼 상용기 시장에서 주요 엔진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A320 계열기를 비롯해 A340, 보잉 737 등 전 세계 주요 상용기 엔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외

에도 스네크마가 참여해 개발된 엔진에는 CF6, GE90, GP7200, SaM146 엔진 등이 있다.

로켓 엔진

항공기용 엔진과 함께 주요 사업분야인 로켓 엔진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리안 5 발사체에 장착되는 Vulcain II 메인엔진

현재 스네크마는 아리안 5 발사체의 메인 엔진인 Vulcain²과 상단 엔진인 HM7B의 주계약자로 되어 있으며, 신형 상단 엔진인 Vinc²도 개발 중이다. 특히 스네크마는 유럽우주기구(ESA) 회원국들의 협력기업으로 로켓엔진 개발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유럽 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실증용 모델 및 엔진생산에 기반 한 선행연구와 기술정책을 펼치고 있다.

MRO

스네크마는 엔진 개발뿐만 아니라 군용기 및 상용기 엔진에 대한 수리 및 관리, 창정비 등 MRO 서비스도 하고 있다. 특히 스네크마는 운전자들이 수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엔진장착 상태에서 수리를 하거나 또는 손쉽게 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MRO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비 솔루션 개발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신뢰성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평가

현재 사프란 그룹(SAFRAN Group)에 속해있는 스네크마는 오늘날 세계 선도적인 항공우주 엔진제작사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그런 만큼 광범위하고 다양한 추진 시스템을 수주하고 있다. 특히 스네크마가 설계하고 제조하는 민항기 엔진은 매우 강력하고 신뢰성이 높은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경제적인 친환경성 그런 제품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용기 엔진을 비롯해 우주 발사체 엔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엔진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